

〈개그콘서트〉를 빛내는 신인 개그맨

웃음의 미래, 그들이 만든다!

글. 김상안 KBS 송신인프라부



개그콘서트의 성공적인 부활!
그 성공의 주역은 다름 아닌 KBS 신인 개그맨들이다!
그들의 다채로운 활약상들을 낱알이 파헤쳐보자!



2025년 현재, KBS 2TV의 장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다시 웃고 있다. 잠정 종영 이후 오랜 공백을 딛고 돌아온 개그콘서트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감각, 트렌디한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신인 개그맨들의 활약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관객의 반응은 빠르고 뜨겁다. 예전처럼 그때 그 유행어를 반복하는 구조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이 녹아있는 개그,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무대로 탈바꿈한 것이 바로 <개그콘서트>가 빠르게 전성기의 '폼'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개그콘서트 33기, 34기 신인 개그맨들이 서 있다. 이들은 신선한 에너지,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센스있는 유머까지 갖추며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인 개그맨들이 몰고 온 변화

개그콘서트는 한때 KBS의 상징이자, 일요일 밤을 책임지던 국민 예능이었다. 하지만 유튜브, 숏폼, SNS를 중심으로 변화한 콘텐츠 흐름 속에서 고전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진은 단순한 부활이 아닌 완전한 세대교체를 감행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바로 혜성처럼 지금의 신인 개그맨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배 개그맨들의 틀을 벗어나, 자기만의 캐릭터와 이미지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누군가는 황당한 사기극을 펼치고, 누군가는 시골 여학생이 되어 관객들을 울고 웃긴다. 대사를 외우기보다는 스스로 코너를 만들고, 대본을 쓰고, 캐릭터를 기획하며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고, 적극적인 웃음으로 다가가 관객들을 환호하게 만든다.

지금 주목해야 할 신인 개그맨 3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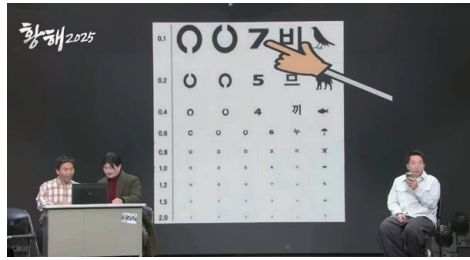
33기 오민우 × "일단, 웃으라, 웃으라, 웃으라"

출연 코너	'황해 2025'
웃음 포인트	메신저 피싱 사기극을 유쾌하게 풀어낸 현실 공감 개그
관전 키워드	디지털 사기꾼, 무표정 연기, 몰입 유발자

'황해 2025'는 최근 개그콘서트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인기 코너다. 그 중심에 있는 오민우는 눈빛 하나, 억양 하나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힘을 가졌다. "이체해줘", "일단, 웃으라, 웃으라, 웃으라" 같은 평범한 문장이 그의 입을 거치면 웃음이 되고, 풍자가 된다. 실제로 중장년층에게는 경각심을, 청년층에게는 공감을 주는 코너로 자리 잡았다. 그는 개그의 경계에서 웃음과 사회성을 절묘하게 섞는 신세대형 개그맨이다.

예전 황해와는 다르게, 영상을 활용하여 개그를 펼쳐가는 것 또한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만의 개그 소통법이다. 적절한 영상, 이모티콘,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눈과 귀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이렇듯 그가 선사하는 개그는 특별함이 있다.





33기 나현영 × "선생님~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출연 코너 '나숙이'
웃음 포인트 1인 학급의 사고뭉치 학생 캐릭터
관전 키워드 사투리, 깨방정, 순수함, 웃김, 엉뚱 매력

'나숙이'는 시골 학교를 배경으로, 단 한 명의 학생과 교사의 일상을 담은 코너다. 이 코너에서 주인공인 '나숙이'를 연기하는 나현영은 현실감 있는 억양, 표정 연기,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특히 10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단순한 유치함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 찌든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양면성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양면적 개그가 특징이다. 그녀만의 독보적인 연기로 시청자는 '나현영만 소화할 수 있는 개그'라며 극찬을 이어가고 있다.



34기 서성경 × "제가 보이세요? 이히히히히"

출연 코너 '심곡파출소'
웃음 포인트 엉뚱한 순간에서 들리는 처녀 귀신 웃음소리
관전 키워드 독특 억양, 귀여움, 뽀뽀 연기

'심곡파출소'는 파출소를 찾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양한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다. 그 중 '처녀귀신'역



을 연기하는 서성경은 귀신 웃음소리를 디테일하게 설계하여 독특한 억양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관객들의 작은 리액션도 큰 웃음으로 바꿔내며 인기 상승 중인 신인 개그맨이다. 개그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른 레퍼토리로 이끌어 나가지 않고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녀만의 독특한 억양으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는 것인데, 특히 10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빈틈없는 개그를 선보이며 앞으로의 개그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신인 개그맨 중 한 명이다.



더 큰 재미는 '풀버전'으로

<개그콘서트>가 지금의 전성기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건 신인 개그맨들의 센스있는 개그를 편집하지 않고 유튜브의 '풀버전'으로 담아내는 것 역시 한몫했다. 짧고 자극적인 클립보다 이야기 전체의 호흡을 중시하는 유튜브 풀버전 전략은, 개그콘서트 정통성과 실험정신을 동시에 부각시켰고,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지며 자발적인 팬덤까지 형성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시대와 플랫폼 변화에 적응한 개그콘서트의 진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더 이상 과거의 향수가 아닌, 현재의 웃음을 만들어가는 무대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는 이들의 무대다

개그콘서트는 이제 다시 'KBS의 얼굴'로 복귀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민우, 나현영, 서성경처럼 관객과 바로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새로운 얼굴들이 있다. 이들은 과거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객보다 빠르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웃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가며 정말 필요한, 관객들이 원하는 웃음을 주고 있다.

어쩌면 개그콘서트의 재도약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금, 이 순간도 땀 흘리며 웃음을 빛내는 신인 개그맨들이 있다.

